

8. 미 공화당 세제개혁의 뜨거운 감자 '국경조정세'

뉴욕지사

주요내용

▶ 미 공화당 세제개혁 청사진(Tax Reform Blueprint) 발표

- 2016년 6월 미국 하원 공화당은 소비세 도입, 법인세 인하, 글로벌 관세 폐지 등의 세제개혁을 담은 청사진을 발표했다.
- 세제개혁을 통해 자국민의 세금부담을 줄이고 자국기업의 해외공장 이전을 막아 국민소득 증대, 일자리 확대, 수출가격 경쟁력 확보 등 긍정적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.

▶ '국경조정세(Border Adjustments)'란

- '국경조정세'란 미국에 수입되어 소비자들에게 판매되는 제품에는 세금을 부과하고 해외로 수출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세금을 면제하는 제도이다. 유형재(식품, 공산품)뿐만 아니라 무형재(서비스, 지적 재산권 등)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.
- 예를 들어 미국에서 제조되어 한국으로 수출되는 제품, 한국에서 제조되어 미국을 거쳐 제 3국으로 수출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지만 한국에서 제조되어 미국으로 수출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한다.
- 현행 법인세 35%를 20%로 인하할 경우 줄어드는 세수를 국경조정세로 충당할 수 있게 된다.

▶ 제품의 도착지 별 국경조정세 적용 시뮬레이션 (KPMG 자료 인용)

단위 : Million \$

I 사례 (A) 한국 → 미국 (수입) I

	현행	개혁안
판매액	1,000	1,000
수입원가	-700	0
매출 총이익	300	1,000
일반 관리비	-150	-150
이자 비용	-50	0
과세소득	100	850
세율	35%	20%
세금	35	170

I 사례 (B) 미국 → 한국 (수출) I

	현행	개혁안
판매액	1,000	0
수입원가	-700	-700
매출 총이익	300	-700
일반 관리비	-150	-150
이자 비용	-50	0
과세소득	100	-850
세율	35%	20%
세금	35	0

※ 공화당 세제개혁안에서는 수입원가와 이자비용을 공제대상 비용에서 제외함

- 사례(A) 수입의 경우, 수입원가 및 이자비용을 공제해주지 않기 때문에 법인세율이 35%에서 20%로 하향되더라도 기존 부과된 세금 3천5백만 달러가 1억 7천만 달러로 인상되게 된다.

- 사례(B) 수출의 경우, 판매액(수출액)을 과세 대상 이익으로 보지 않으므로 원가 및 인건비, 경비가 순영업손실(NOL; Non Operating Loss)로 반영되어 부과되는 세금이 없다. 따라서 국경조정세로 수입은 억제, 수출은 장려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.

▶ 국내외 제조업체 및 해외 정부기관 반응

- 국내외 아웃소싱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는 국경조정세 도입 반대 단체는 세계개혁으로 수입품의 가격이 인상됨에 따라 미 소비자들이 그 부담을 떠안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, 국경조정세 도입 찬성측에서는 20~35%의 감세효과를 볼 수 있다며 공화당의 세계개혁안을 반기고 있다.

※ Americans for Affordable Products(저렴한 제품을 위한 미국인)

: 월마트, 타깃, 베스트바이 등(주로 내수업체) 세계 개편안에 반대하는 100여개 기업, 무역단체 모임
American Made Coalition(미국산 연합)

: GE, 보잉, 오라클 등(주로 미국에 공장을 둔 제조업체) 세계 개편안에 찬성하는 단체

- 유럽연합(EU)은 불공정무역으로 WTO제소를 추진하고 있으며 캐나다와 같은 대미 수출국들의 반발도 거센 상황이다.

* 출처 : waysandmeans.house.gov, KPMG, CNBC

시사점

- 트럼프는 대통령 임기가 시작됨과 동시에 TPP탈퇴, 국경세 도입 등 자국보호무역주의를 표방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. 이번 공화당의 주도로 발표된 세계개혁의 청사진은 식품을 포함한 모든 수입 공산품에 대해 막대한 세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다국적기업 및 대미 수출국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.
- 발표된 청사진에는 아직까지 구체적 계획을 담고있지는 않지만 국경조정세 시행 시 물품 수입대금에 대한 매출원가 불인정으로 수입제품 소비재 가격이 급상승하여 한국산 제품 수입업체 및 유통업체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.

미국

America

9. 미국, 수입식품에 의한 질병 발생 증가

LA지사

주요내용

▶ 미국 식품관련 질병조사 결과, 수입식품으로 인한 발병률 증가 추세

- 미국인들이 소비하는 식품 중 수입산이 약 19%를 차지하고 있다. 전체 소비량 중 수입산 비중은 수산식품이 97%로 가장 높았고 신선과일이 50%, 신선채소가 20%로 그 뒤를 이었다.
- 아직까지 수입식품에 의한 질병발생 건수가 미미한 편이긴 하지만 그 원인이 되는 수입식품과 발병률이 모두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. 1996년부터 2000년 사이에 수입식품관련 발병이 3건이었던 반면, 2009년부터 2014년 사이에는 연평균 18건으로 증가했다.

▶ 질병유발 원인 농산물은 캐리비언 및 라틴아메리카지역산, 수산물은 아시아 국가산

- 질병 발생의 원인이 된 농산물은 주로 멕시코, 칠레, 코리타리카산이었으며, 수산물의 경우 주로 아시아 국가로부터 수입한 식품이었다. 주로 고등어과 독소(scombroid toxin), 살모넬라균(Salmonella) 및 원포자충속 (Cyclospora)이 문제가 되었다.

▶ 한국 수산물, 비위생 관련 문제로 작년 29건 통관거부 발생

- 2016년 미국으로 수출된 한국 농수산물식품의 통관거부 사례 총 156건 중 리스테리아, 살모넬라 및 비위생과 관련 사유로 거부된 사례는 29건으로 모두가 수산물이었다. 특히 멸치는 내장제거 관련문제로 수입경고(Import Alert) 상태이기 때문에 즉시 통관거부되고 있다.

* 출처 : Food Safety News 및 FDA Import Refusal Report

시사점

- 소비자들의 식품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수입식품 뿐 아니라 국내생산 제품의 리콜도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추세이다.
- 수입식품의 안전과 관련한 문제는 대부분 FDA에서 관여하고 있으며, 미국식품현대화법(FSMA) 실시로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규제가 더 견고해질 것으로 보인다.